

올리버 오도노반의 정치신학*

김동환 (연세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어거스틴 정치신학의 재조명
- III. 권위에 대한 정치신학적 조명
- IV. 부활에 대한 정치신학적 조명
- V.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8024923).

• ABSTRACT •

A Political Theology of Oliver O'Donovan

Kim, Dong Hwa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and examine the political theology of Oliver O'Donovan who is a prominent England theologian. First of all, his political theology begins with his critique for a modern academic flow that intends to separate politics from theology. Against this flow, he proclaims that theology must be political, and strives to rediscover a modern political theology. His first rediscovery is the reflection on Augustinian political theology. By adopting a philosophical approach, he tries to overcome a so-called Niebuhrian realistic approach concentrating on tangible political issues in the world. Additionally, he seeks to overcome the gap between an Augustinian just war theory and pacifism by concentrating on the Bible itself. His second rediscovery is the reflection on authority. With the new keyword, authority, he seeks to deliberate and develop the current Augustinian dual approach to the world and the heaven. His third rediscovery is the reflection on resurrection. He proposes Christology rather than Jesuology by focusing not on Jesus' works in the world, but on Christ's salvific events in God's providence. Here, it is resurrection that is the climax of Christ-events showing the pictures of God's salvation. Resurrection is the vindication of God's salvation through Christ as well as that of God's creation. Indeed, it is the core of O'Donovan's political theology. Particularly, the emphasis on resurrection can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a cross-driven political theology of suffering and death and a resurrection-driven political theology of hope and life.

Key words: Oliver O'Donovan, Political Theology, Augustine, Bible, Authority, Christ-event, Resurrection

I. 들어가는 말

영국의 신학자요 영미 기독교윤리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올리버 오도노반(Oliver O'Donovan)의 정치신학의 내용을 소개 및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쉽게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이겠지만, 그동안 기독교 윤리학의 분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정치신학에 대한 국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축, 즉 독일을 중심으로한 유럽권 신학자들에 대한 연구와 미국을 중심으로한 영미권 신학자들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축에서의 연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전자 곧 유럽권 신학자들에 대한 소개 및 연구가 다분히 독일의 신학자들에게 집중되어졌다는 점과, 이와 마찬가지로 후자 곧 영미권 신학자들에 대한 소개 및 연구가 다분히 미국의 신학자들에게 집중되어졌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첫째로 표면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유럽권으로의 신학 공부의 흐름이 다분히 독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활동하게된 신학자들의 연구가 본인들이 공부한 독일 신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영미권으로의 신학 공부의 흐름이 다분히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활동하게된 신학자들의 연구가 본인들이 공부한 미국 신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둘째로 내면적으로 볼 때, 유럽권의 신학의 내용 중 정치신학에 대하여 왕성한 연구를 한 훌륭한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독일계¹⁾ 신학자들이었기에 내용적으로도 독일 중심의 신학자들에 대한 소개 및 연구가 활발할 수밖에

1) 여기서 '독일계'라 함은 독일 신학계를 포괄적으로 말하고자하는 표현으로서, 독일어계, 독일 출신계, 독일 학력계 등을 뜻한다. 이러한 독일계 신학자의 대표적인 예로, 디트리히 본회퍼, 칼 바르트, 위르겐 몰트만 등을 들 수 있겠다.

에 없었기 때문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영미권의 신학의 내용 중 정치신학에 대하여 왕성한 연구를 한 훌륭한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미국 중심의 신학자들이었기에 내용적으로도 미국 중심의 신학자들에 대한 소개 및 연구가 활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후자 곧 영미권의 정치신학의 흐름 중 미국 중심의 신학자들이 아닌 영국의 신학자에 대한 소개 및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현존하는 영국 정치신학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올리버 오도노반(Oliver O'Donovan)의 신학 사상을 국내 신학계에 소개하고 이를 분석 및 비평해 보고자 한다. 실로 이미 익숙하게 불려지는 영미권 신학은 언어적인 통일성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간의 학문적 교류가 예나 지금이나 매우 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같은 영미권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영미권 신학이 미국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은 솔직히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용어적으로도 ‘영미’권 신학이라 지칭하면서, 현존하는 영미권 정치신학의 대가 중 한명이며, 현존하는 영국의 신학자 중에서만 따진다면 정치신학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오도노반의 신학사상이 아직 국내 신학계에는 제대로 소개조차 되어지지 못해왔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³⁾

2) 미국 중심의 정치신학자의 대표적인 예로, 월터 라우센부쉬, 라인홀드 니버, 존 C 베네트, 존 하워드 요더, 제임스 콘, 스탠리 하우워와스 등을 들 수 있다.

3) 국내에서는 20여년전 그가 강사 시절에 일반 기독교 대중을 위한 소책자로 출판한 생명윤리 관련 저서인 「크리스찬과 낙태」(강웅선 옮김, 서울: 서울서적, 1985)가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번역되어 출판된 책이다. 그의 신학사상이 생명윤리보다는 정치신학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번역된 그의 책이 생명윤리에 관련된 책이었다는 점 또한 다소 아이러니컬하다(참고로 그의 생명윤리 사상이 잘 들어나는 학술 저서는 *Begotten or Made?: Human Procreation and Medical Techniqu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로서 생명의 근원을 창조 신앙에서부터 찾아내어 풀어가고자 하는 그의 기독교 생명윤리적 관점이 나타나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1982년부터 2006년까지 24년간 신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영국내 기독교윤리학 분야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기독교윤리학 분야의 대가로서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윤리학회인 Society for the Study of Christian Ethics의 회장도 역임했던 오도노반은, 수년전부터 에딘버러 대학으로 교수 자리를 옮긴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학문 연구에 매진해오고 있다.⁴⁾ 이처럼 영미권 기독교 윤리학, 특히 정치신학의 대가인 오도노반의 사상을 다루는 것은, 오도노반의 정치신학 자체의 소개 및 연구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분히 미국 신학자들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국내 영미권 정치신학 연구의 보다 균형 있는 연구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물론 제한된 분량의 본 논문에서 방대한 그의 기독교윤리학 전반을 다룰 수는 없기에,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윤리학자로서 그가 가장 관심을 가져온 정치신학의 내용 중 특별히 그의 정치신학의 특징과 핵심이 잘 드러나는 세 가지 주제, 곧 어거스틴, 권위, 부활에 집중함으로써 그에 대한 소개를 대신하고자 한다.

II. 어거스틴 정치신학의 재조명

올리버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어거스틴 계열의 정치신학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어거스틴의 자기애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⁵⁾ 그의 박사학위 지도교수 두 명도 어거스틴 연구가인 영국

4) 아주 최근에 오도노반의 신학사상(특별히 그의 정치사상)을 기념하는 책(Robert Song and Brent Waters, ed., *The Authority of the Gospel: Explorations in Moral and Political Theology in Honor of Oliver O'Donova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15)이 그의 학계 지인들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출판되었다.

옥스퍼드의 헨리 채드윅(Henry Chadwick)과 미국 프린스턴의 폴 램지(Paul Ramsey)였다. 쉽게 말해서, 그는 영국과 미국의 유명한 어거스틴 계열의 두 지도 교수들로부터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어거스틴 계열의 정치신학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신학계의 정황 (특히 국내 신학계의 정황) 속에서 볼 때, 정치신학에 있어서 어거스틴 계열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어거스틴의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의 논리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정치신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소위 라인홀드 니버 식의 기독교 현실주의 계열의 사상과 연결된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⁶⁾ 물론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이 어거스틴 계열이며, 따라서 기독교윤리학의 정치신학 분야에서 그렇게도 강조되어온 기독교 현실주의의 사상과 연결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치와 신학을 기독교 윤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그의 정치신학의 기본 바탕은 분명 기독교 현실주의적이다. 그러나 그에 의한 어거스틴 정치신학의 재조명은, 첫째로 '철학적인' 현실 속고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실제 정치 이슈와 정황에 집중하면서 정치신학을 풀어가던 니버 식의 현실주의적 방식과는 방법론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니버는 그 당시 가장 예민했던 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미국, 일본 등 구체적인 국가들의 실제 핵문제에 관련된 사건들과 정황들에 대해 엄밀히 조사한 후,

-
- 5)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Oliver O'Donovan, *The Problem of Self-Love in Saint Augustin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로도 출판되었으며, 이 책에서 오도노반은 사랑에 대한 예수의 두 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분석하면서, 하나님 사랑, 자기에, 이웃 사랑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사랑의 균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 6) 어거스틴계 정치신학자로서 정의로운 전쟁에 긍정하는 오도노반의 사상은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권력의 사용들"(Uses of Power)을 다분히 긍정하는 폴 램지의 입장과 상통한다(Oliver O'Donovan & Joan Lockwood O'Donovan, *Bonds of Imperfection: Christian Politics, Past and Pres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4), 246-275.

이에 대한 기독교 현실적 해석 혹은 정치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다분히 정치적 이슈와 상황 중심의 현실주의적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⁷⁾ 물론 니버처럼 오도노반도 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현 상황에 맞는 시대적 이슈들을 선행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오도노반도 정의로운 전쟁에 근본적으로 긍정하면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 현실 참여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니버와 함께 어거스틴계 현실주의적 정치신학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슈를 풀어나가는 기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오도노반과 니버는 다르다. 오도노반은 니버와는 달리 기독교 현실주의적 방식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철학적 방식을 택한다. 핵을 포함한 전쟁 이슈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쟁이 결국 지향하는 하나님의 평화란 “창조의 근본적인 존재론적 진리”⁸⁾라는 그의 정의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정치적 이슈들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존재론적(ontological) 이슈라고 바라보는 철학적 접근 방식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방법론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은 라인홀드 니버라기보다는 그의 형제인 리차드 니버의 철학적 접근 방식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도노반의 주된 관심이 정치신학에 있었기에 그의 정치신학적 입장은 리차드 니버 식의 철학적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기보다는 여전히 라인홀드 니버식의 현실주의적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러한 양면성을 종합해보자면,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은 리차드 니버 식과 같은 철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라인홀드 니버로 대표되는 기존의 어거스틴계 현실주의 사상을 기독교

7) 핵 문제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예를 위해서는 Reinhold Niebuhr, *The Structure of Nations and Empir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9), 164-181를 보라.

8) Oliver O'Donovan, *The Just War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

신학적으로 재조명해본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⁹⁾

둘째로 그의 어거스틴 정치신학의 재조명은 매우 ‘성서적’이다.¹⁰⁾ 그는 그동안 정치신학의 흐름이 다분히 정치 현실의 사회적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된 성서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어야함을 피력한다. 그의 성서에 대한 관심은 정치신학자들이 세상의 정치적 흐름을 읽는 것과 함께, 아니 그 이전에 반드시 성서를 직접 열심히 읽어야한다는 강한 표현으로 나타난다.¹¹⁾ 그는 “우리 시대에 정치신학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기쁨은 아주 분명하게도 성서를 읽는 것으로부터 일어난다”¹²⁾ 라고 단언한다. 정치신학이 신학의 분야 중 하나로서 정치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지 정치학의 분야 중 하나로서 신학의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이지 신학정치(theological politics)가 아니라면, 정치신학이 성서적이어야 한다는 오도노반의 입장은 많은 현대 정치신학자들을 향한 따끔한 질책¹³⁾ 이기 이전에, 신학으로

9) 오도노반의 철학적 접근 방식은 그의 초기 저서이자 대표 저서인 *Resurrection and Moral Order: An Outline for Evangelical Ethic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4)에서부터 나타난다. 이 책에서 그는 신아리스토텔레스(neo-Aristotelian)의 덕 윤리에 잇댄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의 철학적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순종의 윤리를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전개해나가면서 그의 기독교 철학적 접근 방법을 분명히 제시한다.

10) 오도노반의 성서적 정치신학 방법론의 이해를 위해서는 Craig G. Bartholomew, *A Royal Priesthood? The Use of the Bible Ethically and Politically: A Dialogue with Oliver O'Donovan*, ed., Craig Bartholomew, et al (Grand Rapids: Zondervan, 2002)를 보라.

11) 이러한 오도노반의 성서적 관심을 브렌트 워터스(Brent Waters)는 “게으른(neglected) 성서적, 신학적 주제들의 회복”이라고 표현한다(Brent Waters, *The Desire of the Nations: An Overview*, *Studies in Christian Ethics*, vol. 11, no. 2, Edinburgh: T. & T. Clark, 1998), 1).

12) Oliver O'Donovan, *The Desire of the Nations: Rediscovering the Roots of Political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1.

13) 유사한 입장에서 알렌 벨헤이(Allen Verhey)는 현대 정치신학자들의 성서 읽기에 대한 무심함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성서를 읽는 “독자들의 교만”(pride of readers)이라고 표현한다(Allen Verhey, *Remembering Jesu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서의 정치신학의 기본 입지를 분명히 하지는 근본적인 정치신학의 방향 설정에 대한 제안으로 볼 수 있다.¹⁴⁾

그가 성서에 집중할 때, 그의 정치신학은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현대 정치신학자인 존 하워드 요더나 스탠리 하우워스와 같은 학자들의 성서적인 정치적 조명과 상통한다. 물론 정치신학의 큰 흐름으로 볼 때 평화주의(pacifism) 입장에 서있는 요더나 하우워스의 사상은 일차적으로 어거스틴 계열, 즉 정의로운 전쟁에 긍정하는 입장과는 상충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성서에 집중하고 성서에 근거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비는 성서의 조명이라는 방법론적 틀 속에서 특이하게도 서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성서 중심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평화주의 입장과 정의로운 전쟁의 어거스틴적 입장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이처럼 방법론적 연결의 고리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대립해오던 두 정치신학적 입장 상호간의 연결을 꾀하기 이전에, 오도노반의 어거스틴적 정의로운 전쟁 사상과 존 하워드 요더와 같은 신학자들의 평화주의 사상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둘 다 성서적이기는 하나 각자가 말하는 성서 중심적 방법론이 정치신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며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요더가 성서에 집중할 때 예수의 말씀과 지상에서의 사역 자체에 집중하는 반면, 오도노반은 성서에 집중할 때 신학적으로 해석된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한다는 점에 있다. 말하자면, 요더가 성서를 통해 예수론(Jesuology)을 주장한 반면, 오도노반은 성서를 통해 그리스도론

2002)).

14) 정치신학에서의 성서와 정치학과의 연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Dong Hwan Kim, *Politics in the Bible*, 「대학과 선교」, 한국대학선교학회, 제22집, 2012, 76-79 참조.

(Christology)를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오도노반은 예수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와 사도들에 의해 설립되어진 교회들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별한다. 한마디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직접 선포했던 반면, 사도적 교회는 이를 직접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¹⁵⁾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사도적 교회가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에 의해 이미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단지 입증했었다(vindicated)는 것이다.¹⁶⁾ 그러한 입증의 과정 속에서 교회가 초점을 두었던 것은, 예수의 지상에서의 사역 자체라기보다는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적 사건(Christ-event)이었다. 쉽게 말하면 이는 구원사적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에 예수의 실제 사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볼 수 있겠다. 구원관에서 바라보는 핵심적인 그리스도 사건은 물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오도노반에게 있어서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교회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한 그리스도 곧 구세주이다. 교회는 예수가 이미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또다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선포할 수도 없기에) 예수가 이미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확인(혹은 입증)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15) Oliver O'Donovan, *The Desire of the Nations*, 120.

16) '입증'(vindication)이라는 용어는 오도노반이 독특하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중요한 용어이다.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이 단어가 사용되는 내용 이전에 먼저 무언가가 근원적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도적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입증했다(vindicated)는 것은, 사도적 교회가 이를 하기 이전에 무언가가 먼저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오도노반에게 있어서, 그 이전의 무언가의 근본적 주체는 하나님이며, 그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 사건(God-event)은 '창조'이다. 특별히 정치신학의 틀 속에서 말하자면, 모든 정치 질서의 근본적인 틀이자 출발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창조 질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IV장에서 논의하겠으나, 오도노반에게 있어서 창조를 입증하는 사건들의 절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가 강조해야 할 믿음의 대상은 나사렛의 예수라기보다는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도노반은 신학의 담론으로서 담아야 할 내용이 예수론이 아닌 그리스도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론적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의 사역, 즉 예수 사건(Jesus-event)에 초점을 둔 요더의 성서 중심적 정치신학은 그 기본 방향에서부터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오도노반은 정치신학에서 성서를 해석하고 사용할 때 이러한 점이 분명해야 함을 강조한다: “핵심은 그리스도론(Christology)이다. 만약 정치신학이 예수론(Jesusology) 속으로 자신을 던짐으로써 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론적으로(Christologically) 어떻게 직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¹⁷⁾ 이러한 두 정치신학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왜 요더가 성서에 집중하되 ‘예수’의 지상에서의 사역과 특별히 예수 사건으로서 십자가 고난 사건에 집중하게 되었고, 고난에 근거하여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되었으며, 결국 평화주의 입장으로 향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도록 해주며, 반면 왜 오도노반은 성서에 집중하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특별히 그리스도 사건으로서 부활의 사건에 집중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평화를 가져다주기를 기대하는 정의로운 전쟁의 어거스틴적 사상을 고수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요약하자면,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은, 현실 정치 이슈와 사회적 정황의 분석에 집중함으로써 접근하는 기존의 현실주의적 방법론이 아닌 철학적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택함으로써 그간 미국 중심의 정치신학의 강세였던 소위 니버식 현실주의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어거스틴계 정치신학을 전개해 나갔다는 점에서, 또한 기존의 정치신학이 정치 현실의 사회적 관심에 치중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던 성서에 대한 중요성을

17) Oliver O'Donovan, *The Desire of the Nations*, 123.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성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성서 속에서 예수 사건이 아닌 그리스도 사건에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정치신학을 전개시킴으로써 정의로운 전쟁 사상과 같은 어거스틴계 정치사상을 새롭게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어거스틴 정치신학의 재조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I. 권위에 대한 정치신학적 조명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은 현대 신학의 담론 속에 여전히 배겨있는, 신학과 정치를 분리시키려는 경향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정치신학의 주저라 할 수 있는 *The Desire of the Nations*에서, 그는 “신학이 복음적이려면 신학은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러한 제언을 정치신학의 재발견(rediscovery)이라고 과감히 표현한다. 달리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신학과 정치를 분리시키려는 흐름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발걸음은 그런 흐름을 의심(suspicion)하는 발걸음이라고 보면서, 철학적이면서도 성서적인 접근 방식을 통하여 현대 정치신학을 통전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한다.

사실 오도노반 훨씬 이전에, 신학은 순수히 종교적이어야 한다는 소위 에른스트 트뢰치(Troeltsch)의 종교사회학적 고정관념을 깨고¹⁸⁾ 신학은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현대 정치신학의 물결에 본격적인 파장을 던진 것은 아마로 ‘예수의 정치학’을 제시한 존 하워드 요더로부터일 것이다. 그 이후에 여러 현대 신학자들이 신학과 정치 사이의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18) 에른스트 트뢰치(Ernst Troeltsch)의 “예수의 메시지는 순수히 종교적이다”(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 1, tr. Oliver Wy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1), 50)라는 표현이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정치신학에 대한 본격적인 많은 논의를 해왔다. 이러한 정치신학의 흐름 속에서 오도노반만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가 신학과 정치 사이에 ‘복음’이라는 키워드를 화두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은 우선적으로 복음적(evangelical)이어야하는데, 여기서 신학이 복음적이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모든 신학의 논의들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나와야된다”¹⁹⁾는 말이다. 또한 신학이 복음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신학은 복음의 역동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으며, 복음에 근거한 신학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신학이 세상을 향해 복음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정치라는 현실에 무관심해서는 결코 안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보이면서 세상의 정치 흐름을 신학적으로 의심(suspicion)하며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와 그리스도와의 유형론에서 리차드 니버가 어거스틴을 ‘세상을 향한 변혁자(transformer)로서의 그리스도’의 유형의 대표 인물로 그렸듯이, 이러한 복음적인 적극적 정치신학의 표출은 또 한번 오도노반이 어거스틴계 정치신학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어거스틴계 정치신학자로서 오도노반에게 중요한 정치신학적 담론은 두 권위(dual authority)에 대한 해석이다. 두 권위의 관계에 대한 그의 관심은 분명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의 이분적 분석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에 틀림없다.²⁰⁾ ‘권위’(authority)라는 화두를 통해 그는 어거스틴적인 이분적 정치신학의 담론을 다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신의 도성의 이분적 분석을 미리 염두해 둔다면, 오도노반이 말하고자하는 두 권위,

19) Oliver O'Donovan, *Resurrection and Moral Order*, 11.

20) 두 도성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분적 분석이 확연히 드러난 대목은 XIV권 28장이다(Saint Augustine, *The City of God*, tr. Gerald G. Walsh, S. J., et al. (New York: Doubleday, 1958), 321-322).

곧 세속적(secular) 권위와 영적(spiritual) 권위의 관계는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 두 도성의 관계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그러했듯, 오도노반에게 있어서 영적 권위는 항상 세속적 권위에 앞선다. 세속적 권위에 대한 영적 권위의 우선성의 성서적 근거로서 오도노반은 이사야서 33장 22절을 든다: “주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 주시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는 야훼의 통치(reign) 곧 하나님의 왕권(kingship)이 우선적으로 영적권위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성서적 근거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개념은 구약에서조차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왕권(kingship)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권의 근원은 오직 신적 권위(authority)를 뜻하고 있지 신적 권력(power)을 뜻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왕권이 지배적인 신적 권력이 아니라 순수한 영적 권위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하나님의 왕권이 세상의 힘의 논리 속으로 휘말려들어 지배적 개념으로 왜곡되어 해석 내지는 사용될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시켜 준다.²¹⁾

이러한 점에서는 다소 상충되던 요더와 오도노반의 입장이 다시금 일맥상통한다. 요더의 정치신학의 주요 내용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God will fight for us)²²⁾라는 성서적 근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 혹은 권력(power)은 이스라엘의 그것보다 항상 앞선다. 비록 요더가 오도노반처럼 권위와 권력의 의미 차이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고 그

21) 이처럼 두 권위에 대한 오도노반의 이분적 해석은 *The Desire of the Nations* 이후에 출판된 그의 책 *The Ways of Judg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5)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된다. 이 책은 영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의 이분적 구도를 심판(judgment)이라는 또 다른 키워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즉 심판의 실존적 장(場)인 이 세상 속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공공신학적 정치 담론을 쌓아간다.

22) John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4), 76.

모두를 정치적 권력으로서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을 분명히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권력의 우선성 내지는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의 정치신학을 꾸려 나간다는 점에서 오도노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분적 분석의 기원은 성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 바울의 신학적 통찰로부터 시작되었다. 실로 바울계 이분적 논의는 이제껏 정치신학의 핵심 내용이자 기본틀이 되어 왔다. 이를 중세에 어거스틴이 도성(city)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풀어 갔다고 하면, 종교개혁기에 루터는 왕국(kingdom)이라는 키워드로 풀어간 것이며, 현대에 오도노반이라는 정치신학자는 권위(authority)라는 키워드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각주에서 소개했듯이, 매우 최근에 오도노반의 제자들과 그와 교류하던 학계 지인들이 함께 그를 기념하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 책 제목이 「복음의 권위」(*The Authority of the Gospel*)인 것을 보면, 정치신학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현대 신학자 한 명이 ‘권위’라는 키워드로 풀어나간 것은 앞으로의 정치신학의 흐름 속에서 회자되어질 만한 의미 있는 시도라 여겨진다. 특별히 권위를 말할 때 권력이 아닌 권위를 구별 지위 말함으로써 영적 권위가 세상에 관여할 때 세속적 권력으로 변질될 수 없는 신학적 근거를 성서를 통하여 제시한 것은, 앞서 그가 말했던 ‘신학이 복음적이려면 신학은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제안 속에서의 복음의 본질, 즉 복음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도 어떻게 계속 영적일 수 있으며, 세상의 권력과 마주 대하면서도 어떻게 계속 권위적일 수 있는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처럼 권력이 아닌 권위에 초점을 두는 것은 오도노반의 성서적 관심을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선뜻 옮겨 놓는다. 왜냐하면 권력이 아니라 권위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말할 때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권위로온 존재

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이다. 오도노반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권위에 대해서도 다루긴 하나,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보다 더 집중하게 되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집중할 때 그가 주로 채택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서라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권위의 성서적 근거를 복음서 중 마가복음에서 찾는 것도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을 살피는데 있어서 독특한 점들 중 하나이다. 오도노반과는 달리, 예를 들어 사회학적 관심을 가진 성서 신학자인 서중석은 복음서의 특성을 논하면서 예수의 권위가 가장 잘 드러난 복음서로서 마태복음서를 든다. 왜냐하면 마태공동체가 바라본 예수는 “카리스마적 활동”을 하며 그의 추종자들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교사였기 때문이다.²³⁾ 반면 마태공동체와는 달리 마가공동체가 바라본 예수의 이미지는 권위로운 모습을 쉽게 찾기 어려우리만큼 철저히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복음서 중 굳이 마가복음서를 택할 신학적 동기는 크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성서사회학적 관점과는 달리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마가복음서는 세속적 권력(power)과는 차별화된, 오히려 세속의 권력 아래에서 억눌려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에게서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는 영적 권위(authority)의 위용을 대조적으로 더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서이다. 이러한 정치신학적 대조의 양상, 즉 세속적 권력과 영적 권위의 대조의 양상, 그리고 그 대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는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의 우월성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로서 오도노반은 마가복음서 1장 22절을 들고 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시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²⁴⁾ 또한 오도노반은 다분히 영적인 사건, 즉 치유와 귀신 축출 사역

23) 서중석, 「복음서해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48-155.

속에서도 세속적 권력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의 우월성을 찾아낸다.²⁴⁾

한편 영적 권위가 세속적 권위에 항상 우선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세속적 권위가 항상 영적 권위에 종속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세속적 권위가 영적 권위에 종속된다는 말이 양자가 서로 상충되어 서로 분리되어진다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자는 후자에 종속되는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후자를 중재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예언자가 하나님에게 종속되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권위를 가지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세속적 권위는 영적 권위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실현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할 근거를 얻게 되며, 이와 동시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세상 참여적 입장은 다시 한번 그의 정치신학이 기존의 기독교 현실주의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현실주의적 접근은 철저히 영적 권위의 세속적 권위에 대한 우월성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재확인해 줌으로써 극단적인 세속화를 억누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의 정치신학은 어거스틴계 정치신학으로서 기존의 현실주의 정치신학과 일맥상통하지만, 세상의 정치 이슈와 정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가장 적합한 신학적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소위 상황윤리적 현실주의 정치신학의 성향까지는 띄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가 세속적 권위와 연관될 때 현실주의적인 타협은 피할 수 없다. 영적 권위가 아무리 세속적 권력이 아닌 신적 권위를 지닌다 하더라도, 그 관계의 마당이 세상이기에 타협은 불가피하

24) Oliver O'Donovan, *The Desire of the Nations*, 88.

25) 이와는 또 달리, 요더는 주로 누가복음서를 통하여 세상의 권력과 예수의 권력을 대비시킨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요더가 권위와 권력을 구분하지 않고 권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 속에서 세상과 예수를 정치신학적으로 대비시켰기에, 이러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약한 마가복음서를 굳이 택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다. 현실 정치 세계 속에서의 화두는 타협을 ‘얼마나’ 덜하여 영적 권위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반드시 타협은 해야 하되 ‘어떻게’ 영적으로 권위 있는 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소위 라인홀드 니버 식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널리 알려진 대로 ‘정의’를 타협의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최고의 기독교적 가치인 사랑의 지상에서의 구현을 위한 근사치적 가치로서의 정의의 실현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오도노반에게 있어서 이러한 타협의 범위를 규정해줄 수 있는 가치 혹은 방법론적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이다. 세상과의 현실주의적 타협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그가 화두로 내세운 권위를 그는 자유라는 가치와 연결시킨다: “권위는 자유의 객관적인 상관현상(correlate)이다. 권위는 우리의 행동의 의미 있게 해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이다.”²⁶⁾ 분명 인간은 자유의지를 신으로부터 받았으며, 그 자유를 세상 속에서 뿜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가 진정한 권위로와지기까지 하려면, 그 자유는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 져야만 한다. 여기서 니버의 정의가 궁극적으로 사랑에 종속되어 있듯, 권위로운 인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종속된) 자유로움만이 인간의 자유에 권위까지도 부여해준다. 권위까지도 부여받은 자유로운 인간은, 물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는 존재론적 한계를 지닌 인간이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구현시켜나갈 세속적 권위까지도 부여받은 존재이다. 구체적으로, 세속적 권력과 타협하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는 할 수 있으나 권위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로운 인간이 해야 할 바는 아니다. 권위까지도 부여받은 자유로운 존재가 해야 마땅한 세상 속에서의 타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에서 영적 권위까지도 누릴

26) Oliver O'Donovan, *Resurrection and Moral Order*, 122.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세속적 권력이 아닌 세속적 권위를 세워나감으로써 세속적 권위를 통하여 영적인 권위를 세상 속에 중재시키는 것이다.

오도노반의 자유의지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자유의 바탕인 사랑에 대한 근원적인 해석 또한 매우 어거스틴적이다.²⁷⁾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후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라는 어거스틴의 사상이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유 곧 방종으로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오도노반은 그의 독특한 권위에 대한 해석을 첨가하여 그의 정치신학 속에서 재발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IV. 부활에 대한 정치신학적 조명

오도노반이 말하는 정치신학의 재발견의 핵심이자 최종점은 ‘그리스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예수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이다. 실제로 그는 예수(Jesus)라는 단어 대신 그리스도(Christ)를 주로 사용한다. 그의 정치신학에서 영적 권위가 세속적 권위를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것은 바로 구세주로서의 예수, 곧 그리스도 사건(Christ-event)을 통해 표출된다. 구체적으로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 사건의 네 가지 단계는 강림(Advent), 수난(Passion), 회복(Restoration), 높임(Exaltation)이다. 우선 강림(Advent) 즉 그리스도의 현현은 하나님의 권위가 지상에서 처

27) 특별히 자유의지에 대한 측면에서 오도노반은 어거스틴적이기에 또다시 니버적이기도 하다. 니버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자유로운 존재인 동시에 제한적인 존재이다(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vol. 1: *Human Natur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4), 182; Dong Hwan Kim, Comparing Transhumanism with Christian Humanism: A Niebuhrian Response to Transhumanists, 「선교와 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제28집, 2011, 268-275). 오도노반에게 있어서도 자유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은 어거스틴계 신학자로서 그대로 나타난다.

음으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수난(Passion) 즉 그리스도의 고난(suffering)은 십자가를 통한 이 세상의 심판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징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심판이란 징벌이라기보다는 세속의 권위에 대한 회개의 촉구를 우선적으로 뜻한다. 수난은 다음 단계인 회복(Restoration) 즉 그리스도의 부활(resurrection)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회복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회복은 물론 앞 단계인, 세속의 권위가 회개를 통하여 거듭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회복과 직결된다.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이 있듯이 영적 권위의 회복은 세속적 권위의 회개를 통해 가능해진다. 또한 부활 사건을 통하여 회복된 영적 권위는 그리스도의 궁극적 통치가 힘을 얻었음(empowerment)을 뜻한다. 회개를 통한 회복과 영적 권위의 복원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두 가지 양상인 것이다.²⁸⁾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로 그리스도 사건의 절정이다. 마지막으로 높임(Exaltation)은 그리스도의 승천(ascension)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앞의 세 사건의 말미를 장식한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영적 권위의 회복이 실현되는 정치신학의 결론을 미리 소망하며 보여주는 그리스도 사건의 마지막 장이다.

한편 이러한 네 가지의 그리스도 사건은 그 다음 사건인 성령강림(Pentecost)의 사건을 향하여 열려있다. 그리스도 사건의 네 단계가 영적 권위의 지상에서의 실현의 단계를 표증 해준다는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 사건들이 성령강림의 사건을 향하여 열려있다는 것은, 영적 권위의 지상에서의 실현이 성령강림을 통하여 탄생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오도노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회의 세상에서의 역할은 스탠리 하우워와스가 말하는 교회 자체의

28) Oliver O'Donovan, *The Desire of the Nations*, 142.

교회됨²⁹⁾으로서의 역할과는 다르다.³⁰⁾ 그가 말하는 교회의 역할은 교회(the church)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교회로 대변되는, 즉 교회의 세계적 확장인 그리스도교계(界)(Christendom)의 역할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라는 실체를 통한 그리스도교계의 실현이야말로 오도노반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권위의 세속적 실현의 최종 지향점이다.

이점에서 오도노반은 하우워와스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충돌한다. 콘스탄틴주의(constantinianism)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교회의 세상적 참여의 부작용을 직시하고 교회의 내적 건강에 초점을 두어 교회의 교회됨을 추구하는 하우워와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의 그리스도교계의 실현은 과거의 콘스탄틴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³¹⁾ 그러나 그의 정치신학의 실현, 곧 영적 권위의 지상 실현이 세상의 다른 사회 조직이 아닌 교회라는 기독교 공동체를 통하여 집중적

29) Stanley Hauerwas, *Against the Nation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2), 122.

30) 오도노반에게 있어서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강조가 있다면 공동체성의 의미에 대한 숙고라 할 수 있다. 그가 공동체(community)라고 말할 때의 공동체는 단순한 교제(fellowship)의 개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나눔(sharing) 혹은 활발한 소통(communication)의 역동성을 지향한다(Oliver O'Donovan, *Common Objects of Love: Moral Reflection and the Shaping of Communit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2), 26).

31) 그리스도교계(Christendom)에 대한 부정은 하우워와스 이전에 요더에게서 더 극명히 나타난다. 요더는 콘스탄틴주의를 역사에 길이 남을 지배적 기독교의 역사적 권력 남용의 사건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류 역사에 나타난 사회적 악과 같은 힘을 지닌 것으로까지 간주한다(John Howard Yoder, *The Priestly Kingdo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135-147). 요더와 오도노반의 관계에서만 보자면, 요더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계는 그가 최악시한 콘스탄티니안(Constantinian) 바로 그 자체이기에 요더는 콘스탄티니안에 의해 물든 역사를 완전히 다시 읽을 것(re-reading)을 제안하는 반면, 오도노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계는 콘스탄티니안 그 자체로서 완전히 부정되는 개념은 아니기에 오도노반은 기독교 전통의 회복(retrieval)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콘스탄티니안의 역사를 읽을 것을 제안한다(Paul G. Doerksen, *Beyond Suspicion: Post-Christendom Protestant Political Theology in John Howard Yoder and Oliver O'donovan* (Eugene: Wipf & Stock, 2010), 129).

으로 주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토대를 두고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서에 근거한 그리스도 사건에 비취어 항상 재확인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현실주의적 타협의 범위는 언제나 제한되고 제약된다. 이런 점에서 그의 정치신학은 어거스틴 만큼 현실주의적이거나, 니버 만큼은 현실주의적이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해볼 수 있겠다.

오도노반에 따르면, 그리스도 사건에 있어서 절정의 사건은 '부활'이다. 기독교윤리 분야 중 정치신학의 분과에 있어서 오도노반의 사상이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resurrection)에 대한 그의 강조이자 조명이다. 부활은 오도노반의 기독교윤리 사상의 핵심이자 그가 말하는 현대 정치신학의 새로운 대안이다.³²⁾ 기존의 어거스틴계 현실주의 정치신학자들 중 특별히 부활에 초점을 두고 부활을 정치신학의 화두이자 절정으로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니버로 대표되는 현대 기독교 현실주의 정치신학자들의 화두는 현실 정치 정황으로부터 출발하기에 엄밀히 비평적으로 말해보면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을 포함한 성서적 그리스도의 사건들에 중요한 근거를 두지 않았다. 물론 그들의 신학 사상이 현현, 고난, 부활, 승천과 같은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바탕으로 깔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그리스도 사건들이 그들 정치신학의 화두 내지는 절정, 더 나아가 정치신학의 대안으로써까지 제시되기는 어렵다. 이는 이전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그들의 정치신학의 출발선 혹은 강조점이 상대적으로 성서라기보다는 보다 더 정치 현실에, 복음 자체라기보다는 보다 더 복음의 사회적 구현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32) 부활을 화두로 내세우는 정치신학자로서의 오도노반을 크게 부각시켜준 그의 저서는 역시 그의 대표작이라할 수 있는 *Resurrection and Moral Order*이다.

한편 이러한 기독교 현실주의계 정치신학자들뿐 아니라, 이들과는 다른 정치적 노선에서 특별히 정의로운 전쟁 지지에 대하여 상처되는 입장을 보이는 평화주의자 정치신학자들에게서도 부활을 정치신학의 화두 내지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평화주의 신학자들이 성서의 해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치 현실에서의 성서적 적용에 더욱 민감히 반응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복음의 사회적 구현 이전에 복음 자체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도노반의 성서를 근거로 한 그리스도 사건 중심의 정치신학적 입장과 호흡을 같이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화주의 정치신학자들이 그리스도 사건에 있어서 관심을 집중하는 사건은 부활이라기보다는 고난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들이 주로 그리스도 사건이 아니라 예수 사건, 곧 예수의 지상 사역에 초점을 두는 이유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지배적 폭력에 반하여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자들의 우선적인 관심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모든 시련을 겪어지신 예수의 십자가 고난 사건에 맞추어져 있지 고난 이후에 다가올 영광스런 희망의 부활에 맞추어지기는 어렵다.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강조는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바라보는 부활이지 부활 자체만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들의 정치신학의 화두이자 절정이자 대안으로서 그리스도 사건(그들에게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 사건)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지 부활의 영광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평화주의자로서 하우워와스가 성금요일(Good Friday)에 집중하는 반면, 정의로운 전쟁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현실주의자로서 오도노반이 부활절(Easter)에 집중하는 이유이다.³³⁾

부활을 절정으로 하여 오도노반은 현대 정치신학의 원리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현실주의자적(realist) 원리이고, 둘째는 복음적

33) Oliver O'Donovan, *Resurrection and Moral Order*, xv.

(evangelical) 원리이며, 셋째는 부활(Easter)의 원리이고, 넷째는 교회(church)의 원리이다. 그가 각자에 대하여 설명은 하였지만 정확한 예시까지는 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의 설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서 각각의 예시를 나뉠대로 들어보자면, 첫째 원리(현실주의자적 원리)의 대표적 예는 니버 식의 기독교현실주의 계열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며, 둘째 원리(복음적 원리)의 대표적 예는 주로 복음 전파에 강조점을 두는 소위 보수적 성향의 정치신학 계열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셋째 원리(부활의 원리)의 대표적 예는 바로 오도노반 자신의 정치신학 계열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며, 넷째 원리(교회의 원리)의 대표적 예는 교회의 윤리로 유명한 하우워와스의 정치신학 계열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물론 오도노반이 어거스틴계 정치신학자라는 점에서 그 역시 니버 식 현실주의자적 원리 범위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또한 신학과 복음과 정치를 연결시키려는 기본 입장에 있어서도 그를 복음적 원리의 범주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또한 교회에 대한 그의 관심, 특히 그리스도 사건이 결국 성령강림이라는 교회 사건(church-event)을 향해 열려있다는 그의 교회에 대한 관심에서 볼 때도 그를 교회의 원리로부터 멀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치신학의 범주를 이러한 네 가지 원리로서 분류하자면, 그의 정치사상의 핵심이 역시 부활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정치신학적 조명이 그의 독자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오도노반을 부활 원리의 범주에 가장 적절한 예시자로 드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그의 분류가 현대의 제반 정치신학의 흐름을 정확히 모두 담아낸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류 중 부활이라는 원리가 현대 정치신학의 원리 중 중요한 하나의 범주로서 과감히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다.

특히 오도노반은 부활을 창조의 입증(vindication)으로 해석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에 의해 어그러진 창조질서의 회복이자 새로운 창조 그 자체이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창조를 입증하였다. 부활이 창조의 입증이라는 사실은 부활이 예수 사건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건으로서 입증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를 통해서 볼 때, 부활은 예수 이후에 그의 사도들에 의하여 신학적으로 정립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함으로써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의 부활을 선포하였다. 이런 점에서 부활은 예수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으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사건이 인류의 구원 사건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신앙적, 신학적 출발점이다.

더 나아가 부활이 정치신학에서 조명을 받음으로써, 현대 정치신학은 십자가의 고난 신학을 넘어서서 부활의 희망을 품는 신학을 지향하게 된다.³⁴⁾ 또한 부활이 창조의 입증이라는 점에서, 지상에서의 영적 권위의 실현은 세상과의 무분별한 타협을 통한 세속 권력의 기독교적 표출이 아니라, 항상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점에서 창조의 입증으로서의 부활에 초점을 둔 정치신학은 소위 니버 식 기독교현실주의의, 세상과의 지나친 적극적 타협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창조의 성서적 맥락을 공유함으로써 고난의 십자가에 집중하여 세상과 지나치게 타협하지 않으

34) 이런 점에서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은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과 분명 연결점이 있다. 그러나 몰트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출발하여 종말론적인 희망을 부활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예를 들어 "하나님의 죽음"을 '하나님'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부활의 선포는 또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라는 희망이 어떤 필연적인 것, 어떤 새 것, 또 어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가능성이 되는 것이다'(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신학」, 전경연, 박근원 역 (서울: 현대사상사, 1973), 224)라는 몰트만의 입장), 부활을 십자가 고난으로부터가 아닌 그 이전 창조사역으로부터 연결 지워 바라보면서, 부활이야말로 전체 구원사를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최종 사건이라고 바라보는 오도노반과는 그 강조의 수준에서 사뭇 다르다.

려는 평화주의에 대하여도 보다 열린 정치신학적 성향을 제안해 줄 수 있다. 말하자면 어거스틴의 세상 참여적 현실주의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따르되, 이와 동시에 성서에 집중함으로써, 특히 창조에 근원을 두고 항상 창조 사건을 입증하는(vindicate)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여 세상과의 타협에 적절한 선을 그어 줌으로써,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세상과의 타협을 다분히 부정하는 평화주의와도 공통분모를 찾아가려는, 그래서 그간 소위 니버 식 현실주의를 앞세워 서로 대치하게된 평화주의 또한 존중하며 나아가려는 신중한 어거스틴계 현실주의 정치신학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V. 나가는 말

이제껏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윤리학자인 올리버 오도노반이 주된 관심을 쏟았던 정치신학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 특징이자 핵심 내용으로서, 첫째로 그가 어거스틴계 정치신학자이기는 하나 그간 정치적 이슈와 정황에 집중해오며 현대 영미 정치신학에서 강세를 보여온 소위 라인홀드 니버 식 기독교 현실주의와는 사뭇 다르게 철학적, 성서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어거스틴 정치신학을 재조명하는지, 둘째로 정치신학의 주된 논점이 되어온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바울-어거스틴-루터의 이분적 상관관계를 오도노반은 ‘권위’라는 화두를 내세워 어떻게 심도 있게 풀어나가는지, 셋째로 오도노반이 어떻게 구속사의 틀에서 그리스도 사건의 정점으로서 ‘부활’을 이해하고 이를 정치신학의 정수로 제시하는지, 또한 이에서 더 나아가서 정의로운 전쟁에 긍정하는 어거스틴계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서서 어떻게 부활이 창조의 인증이라는 확신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신학자들과도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의 핵심 내용 중 그의 정치신학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현대 정치신학의 담론에서 반드시 강조되어 발전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부활에 대한 그의 정치신학적 조명일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부활을 화두로 내세우는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은 철학적, 성서적, 복음적, 구속사적, 그리스도론적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 정치신학, 특별히 어거스틴계 현실주의 정치신학을 새롭게 조명해볼 수 있기에, 단순히 그의 정치신학을 소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의 정치신학을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및 비평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중요한 분과인 정치신학의 보다 심도 있는 담론의 장을 열어주기 위하여 앞으로 많은 학문적 기여를 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이처럼 그리스도 사건의 정점으로서의 부활에 초점을 두는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의 논의가 한국 교회와 신학의 역사와 현 시대적 흐름과 연결되어 발전된다면, 이는 식민지, 전쟁, 군사정권으로 이어지며 시대적인 암울함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초점을 두고 진리의 죽음을 애통해 하고 자유를 갈망해오던 그동안의 긴 한국 교회와 신학의 과거사와 함께, 그래도 그 속에서 부활을 통하여 희망을 품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 사회를 헤쳐 나아가야 할 한국 교회와 신학의 미래의 모습을 동시에 품고 나아가도록 해주는, 보다 균형 있는 신학적 작업의 바탕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본다.

참고문헌

- 몰트만, 위르겐. 『희망의 신학』. 전경연, 박근원 역. 서울: 현대사상사, 1973.
- 서중석, 『복음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오도노반, 올리버. 『크리스찬과 낙태』. 강웅선 옮김, 서울: 서울서적, 1985.
- Augustine, Saint. *The City of God*. tr. Gerald G. Walsh, S. J., et al. New York: Doubleday, 1958.
- Bartholomew, Craig G. *A Royal Priesthood? The Use of the Bible Ethically and Politically: A Dialogue with Oliver O'Donovan*, ed., Craig Bartholomew, et al. Grand Rapids: Zondervan, 2002.
- Doerksen, Paul G. *Beyond Suspicion: Post-Christendom Protestant Political Theology in John Howard Yoder and Oliver O'donovan*. Eugene: Wipf & Stock, 2010.
- Hauerwas, Stanley. *Against the Nation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2.
- Kim, Dong Hwan. Comparing Transhumanism with Christian Humanism: A Niebuhrian Response to Transhumanists, 『선교와 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제28집, 2011, 259-280.
- Kim, Dong Hwan. Politics in the Bible. 『대학과 선교』. 한국대학선교학회. 제22집, 2012, 75-93.
- Niebuhr, Reinhold.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A Christian Interpretation*, vol. 1: Human Natur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4.
- Niebuhr, Reinhold. *The Structure of Nations and Empir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9.
- O'Donovan, Oliver, & Joan Lockwood O'Donovan. *Bonds of Imperfection: Christian Politics, Past and Pres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4.
- O'Donovan, Oliver. *Begotten or Made?: Human Procreation and Medical Techniqu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 O'Donovan, Oliver. *Common Objects of Love: Moral Reflection and the Shaping of Community*. Grand Rapids: Eerdmans, 2002.
- O'Donovan, Oliver. *Resurrection and Moral Order: An Outline for Evangelical Ethic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6.
- O'Donovan, Oliver. *The Desire of the Nations: Rediscovering the Roots of Political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O'Donovan, Oliver. *The Just War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O'Donovan, Oliver. *The Problem of Self-love in St. Augustin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 O'Donovan, Oliver. *The Ways of Judg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5.
- Song, Robert and Brent Waters, ed., *The Authority of the Gospel: Explorations in Moral and Political Theology in Honor of Oliver O'Donova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15.
- Troeltsch, Ernst.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 1, tr. Oliver Wy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1.
- Verhey, Allen, *Remembering Jesu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2.
- Waters, Brent. The Desire of the Nations: An Overview. *Studies in Christian Ethics*, vol. 11, no. 2. Edinburgh: T. & T. Clark, 1998, 1-7.
- Yoder, John Howard. *The Politics of Jesu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4.
- Yoder, John Howard. *The Priestly Kingdo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논문투고일: 2015. 06. 24.

심사개시일: 2015. 07. 13.

게재확정일: 2015. 08. 07.

 • 국 문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신학자인 올리버 오도노반(Oliver O'Donovan)의 정치신학의 내용을 소개, 분석, 비평하는 데에 있다. 우선 그의 정치신학은 신학과 정치를 분리시키려는 현대 신학의 지속적인 흐름에 대한 경각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신학이 복음적이려면 신학은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현대 정치신학을 재발견하고자 노력한다. 그의 정치신학의 첫 번째 재발견은 어거스틴 정치신학의 조명이다. 우선 그는 어거스틴의 전통 속에서 현실 정치적 이슈들에 집중하는 소위 라인홀드 니버 식의 현실주의적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철학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한다. 또한 그는 성서에 집중함으로써 어거스틴 계열의 정치신학의 다소 이원적 분리 경향, 즉 정의로운 전쟁과 평화주의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고 전자의 입장에서 성서를 통해 후자를 연결 지우려 노력한다. 두 번째 오도노반의 정치신학의 재발견은 그의 권위에 대한 조명이다. 권위라는 새로운 화두를 통해 그는 어거스틴계 이분적 정치신학의 담론을 보다 심도 있게 조명한다. 세 번째 그의 정치신학의 재발견은 부활에 대한 조명이다. 그는 예수의 사역 자체보다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초점을 두면서 예수론이 아닌 그리스도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그리스도론이 담아내는 그리스도 사건의 최고점을 부활로 규정한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치신학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의 입증이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정치신학적 조명은 예수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현실 참여적 정치신학을 제시하는 기존의 입장과 함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초점을 두고 미래 지향적 정치신학을 균형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제어: 올리버 오도노반, 정치신학, 어거스틴, 성서, 권위, 그리스도 사건, 부활
